제주항 선석 부족 사태 '사고 또 사고'

지난 4월 입항 여객선 정박중인 해경 함정 충돌
접안 가능 선석 29개… 정기운항 선박 55척 달해
도 "신항 조성만이 해법 정부 부처와 지속 협의"

제주에서 239명을 태운 여객선과 3000t급 해경 함정이 충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오전 5시50분쯤 239명을 승선시켜 경남 사천 삼천포에서 출발해 제주항에 입항하던 여객선 '오션 비스타 제주'가 7부두에 정박 중인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3012함(3000t급)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012함 우측 조타실이 파손돼 16일 동안 정비에 들어가야 했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현재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이 이번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3012함 수리비와 유류비 등은 오션 비스타 제주로부터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고는 제주항의 부족한 선석(船席)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9월 24일 제주항 6부두에서 쾌속선 A호가 정박 과정에서 선석과 충돌해 승객 3명이 다쳤고, 2019년 11월 23일에는 227명의 승객을 태운 아리온 제주(제주~전남 고흥)가 접안 중인 화물선(5310t)과 충돌하는 등 부족한 선석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항에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선석은 29개다. 반면 제주항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은 여객선 10척(7개 항로), 관공선 20척, 화물선 25척 등 55척에 이르는 상황이다. 자동차로 따지면 29대만 세울 수 있는 주차장에 50대가 넘는 차량이 몰려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이다.

이로 인해 제주항을 드나드는 여객선들은 승객과 화물을 하선시킨 뒤 제주항 앞바다에서 2시간 이상 대기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제주항에서 여객선이 정박하는 부두는 ▷4부두 제주~여수·목포 2척 ▷6부두 제주~목포·완도·추자 3척 ▷7부두 제주~부산·삼천포 2척이다. 여기에 제주~인천을 잇는 2만7000t급 대형 카페리선 '비욘드 트러스트'도 조만간 취항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항 선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항을 조성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현재 국비 확보와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2040년 개항을 목표로 여객선 선석 9개, 크루즈 선석 9개를 설치하는 제주신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스쿨존서 시속 18㎞로 달렸어도 사고나면 운전자 주의 소홀 책임"

어린이보호구역 지나던 택시
어린이 충돌해 전치 2주 상해
법원 "운전자 과실"… 벌금형

어린이보호구역서 저속으로 달리다 어린이를 치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3시11분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소재 모 초등학교 부근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택시로 충격,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속 18㎞로 택시를 운행했으며, 사고 직후에는 집으로 가려는 피해 어린이를 붙잡고 112와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시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고 발생 당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바 없고, 사고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고 현장에 직접 방문해 현장검증을 실시했고, ▷피해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A씨가 제한 속도 내로만 달렸다는 사실 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당시 교통상황을 살폈을 때 피고인이 차량의 방향을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다만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발생 직후 구호 조치를 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와 검찰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국가유공자 사망시 최고예우 제주도·무공수훈자회 지부

제주특별자치도와 무공수훈자회 제주지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도내 국가유공자들이 사망할 경우 다양한 시책을 통해 예우를 다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시책을 보면 ▷장례식장 분향실에 공적증서 증정 ▷영구용 태극기 및 대통령명의 근조기 설치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조의를 표하고 있다.

무공수훈자회 제주지부는 고인을 모신 관을 대형 태극기로 감싼 후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장례 의전인 '관포식'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017년부터 제주경찰청과 협업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유공자 발인날 장례식장부터 안장지까지 장례차량에 대한 경찰 에스코트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상당의 장례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 국가유공자가 양지공원에서 화장하는 경우 화장수수료 전액 감면하고 있으며, 양지공원에 봉안하는 경우 봉안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동희 도보훈청장은 "국가유공자의 생애 마지막까지 최상의 예우 실현으로 고인의 명예 선양 및 유족의 자긍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그물 제작하는 어민 제주시 조천읍에서 한 어민이 그물을 제작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최근 10년간 동물병원 30곳 증가

제주시 24일까지 실태 점검
"부당청구·과잉진료 행위 등"

반려문화 확산 등의 영향으로 제주시 지역에서 개설한 동물병원이 지난 10년간 30개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 비해서는 57개소가 증가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시 관내 개설 동물병원은 32개소에 머물렀으나 2010년에는 59개소로 27곳이 늘었다. 올해 9월 현재는 89개소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동물병원이 늘어나면서 동물진료의 적정성 확립을 위해 이달 24일까지 운영실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는 반려동물 사육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동물진료 서비스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이뤄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구 거부행위 ▷진료부 등 비치 및 기록 실시 여부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 및 처치 등을 할 때 위험성 및 비용 사전고지 여부 ▷불필요한 검사·투약 및 수술 실시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요구 등의 과잉진료행위 및 동물병원 운영에 관련된 행위 등이다. 또 과다 처방이나 동일 처방 및 중복 처방 등 처방전 발급 적정성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와 유효기간 지난 약제사용 여부, 소독 등 병원 내 위생실태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시는 위반사항 적발 시 확인서 징구 및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간호사들 노동강도 버티기 힘들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
인력 충원 촉구 1인 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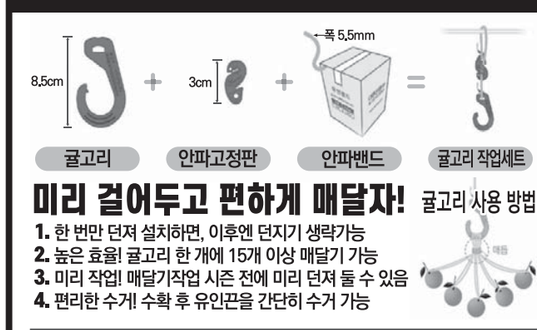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고 의료인력난까지 더해지면서 간호사들이 강도높은 근무환경에 놓이자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낮추고 인력을 충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는 8일 오전 제주대학교병원 앞에서 1인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들은 감당하기 힘든 환자 수와 노동강도를 견디며 매일매일 지쳐가고 있다"며 "간호사 1인당 환자 7명을 하한선으로 정해 법제화를 하는 한편,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 사진

의료연대본부는 "대학병원 간호사는 1명당 12~20명의 환자를 맡는다. 지방요양병원의 경우는 40명까지 담당하고 있어 간호사들은 항상 바쁘고 환자의 호출에도 즉각 응답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간호사들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어 숙련도 높은 간호사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력 충원이 없는 한 노동조건은 더 나빠질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간호사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곧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며 "간호인력인권법을 제정하고 공공병상과 간호인력을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성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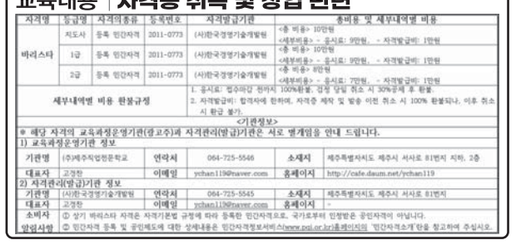
Silver Smile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만감류 매달기! 다인 귤고리


미리 걸어두고 편하게 매달자!
1.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이후엔 던지기 생략가능
2. 높은 효율! 귤고리 한 개에 15개 이상 매달기 가능
3. 미리 작업! 매달기작업 시즌 전에 미리 던져 둘 수 있음
4. 편리한 수거! 수확 후 유인끈을 간단히 수거 가능
'안파고'드는 유인줄 "안파고"

+ 귤, 단감, 대추, 사과, 체리, 복숭아, 자두, 배, 호두 등 모든 과수나무의 처진 가지, 늘어진 가지 해결!
+ 원터치&초간편 길이 조절.
+ 가지에 걸고 고정판에 끼우면 작업 끝.
안파고 小 110호(1m), 115호(1.5m)
안파고 大 210호(1m), 215호(1.5m)
까치, 까마귀, 새 쫓을 때! - 다인독수리연

4m폴대 세트 (대형연, 소형연)
7m 폴대 세트 (대형연)
질긴 천, 강한 부품 비슷해도 다르다!
귤고리, 유인추, 유인줄, 이클립 기타 영농자재
DAIN 다인산업(주) 경북 예천군 보문면 산단길 14-28
상담 및 문의 054-652-3725, www.dainfine.com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 환영
전기기능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양광)취득과정(주간반)
교육기간 2021.10.04~2021.12.27(3개월, 240시간)
교육시간 09:00~13:00(평일 주간, 일일 4교시)
대 상 실업자 · 재직자 · 일 반 ☎ 725-5545
교육내용 전기 이론 & 실기, 태양광 이론 & 실기
전기설비 직무능력 향상 과정(주간반)
교육기간 2021.10.04~2021.12.10(2.5개월, 150시간)
교육시간 14:00~17:00(평일 주간, 일일 3교시)
대 상 위기산업직종 경험자(재직자, 실업자) ☎ 725-5545
교육내용 전기 심화 이론, 전기 설비 이론 및 실습
커피 바리스타 과정
대 상 실업자 · 재직자 · 일 반
교육기간 상시 모집 중 ☎ 725-5545
교육시간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자격증 취득 및 창업 관련

컴퓨터(OA관련, 전산회계 1급, 2급) 과정
대 상 실업자 · 재직자 · 일 반
교육기간 상시 모집 중 ☎ 725-5545
교육시간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OA관련(사무자동화, ITQ, 컴활2급), 전산회계 1급, 2급
2021년 제1회 전기기능사실기 9명 응시 9명 합격(100%)
문*민, 한*남, 강*열, 김*현, 옥*환, 이*석, 정*완, 최*영, 최*혜(총9명)
제주직업전문학교
제주시 서사로 81 (삼도1동) 중앙여중 정류장, 진영마트 맞은편 064)725-5545 http://www.jejuvs.co.kr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 리모델링
辛(신)一(일) 祚(조)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017 포크레인 임대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 아파트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붙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누수탐지 :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